

07 연례보고 08

글로벌 인스티튜트 참가자가 본 2008 광주비엔날레

“미술 학도들 위한 담론의 장 마련”

■스페인 학생 페르난데 폰스·제스미나 호베씨

“수업 일정이 끝난 뒤 광주비엔날레 참여 큐레이터, 한국 학생들과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창작 아이디어가 마구 샘솟아 돌아가면 작품 활동에 열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인스티튜트에 참가한 루이스 페르난데 폰스(사진 오른쪽)와 제스미나 호베씨는 짧은 작가들이 벌이는 격식 없는 토론 수업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다양하고 복잡하게 펼쳐지는 현대 미술을 이해하고 새로운 담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광주비엔날레의 글로벌 인스티튜트처럼 전문적인 교육과 짧은 층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광주비엔날레가 작품 전시에 그치지 않고 미술 학도들을 위한 담론 생산의 장을 마련한 점을 높이 샀다.

루이스 페르난데 폰스씨는 “유럽 작가들은 매우 모아서 토론을 하는데, 이곳에서 한국 학생들을 통해 동양상을 배우게



왜 매우 흥미롭다”고 말했다.

이들은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교와 독일 베를린예술대학을 함께 졸업한 뒤 철, 종이, 돌 등을 이용한 설치작품을 공동으로 창작하고 있는 일종의 작가 그룹이다.

제스미나 호베씨는 “강사로 나선 참여 교수, 큐레이터·작가들의 강의로 매우 만족스럽고 교육 프로그램도 굉장히 전문적이다”면서 “교육이 끝나면 한국의 더 많은 작가들과 교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토론수업 성과 담아 새 전시 기획”

■모로코 큐레이터 압델라 카름씨

“세계화로 현대인의 삶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광주비엔날레에 소개되는 ‘탐험7(상대적 조국)’은 5개 국가의 작가들이 던지는 국가와 조국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비엔날레 ‘제안(Position papers)’ 섹션의 참여 큐레이터인 압델라 카름(모로코·사진)씨가 21일 글로벌 인스티튜트의 강사로 나섰다. 그는 자신이 기획한 ‘탐험7’의 의미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을 한 뒤 자유로운 토론을 이끌어 냈다.

학생들은 전시 기획 의도와 작품들 사이의 연관성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압델라 카름은 작품 이미지와 전시장 도면 등을 예로 들며 학생들의 질문에 답했다. 수업은 종료 시간을 30여분 연장하면서까지 이어졌고, 낮 12시30분이 되자 수업 장소를 아예 식당으로 옮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그는 이날 첫 강의를 했지만 전남대 프



로그램이 시작된 지난 18일부터 참가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그는 “밤이면 참가자들이 머무는 전남대 기숙사에서는 크고 작은 토론이 벌어진다”면서 “강사이지만 학생들의 참신한 의견과 발상을 배우는 학생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번 글로벌 인스티튜트의 성과를 담아 한국에서 ‘탐험7’을 보충해 새로운 형태의 전시를 기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독립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지난 2002년 모로코 라바트에서 미술 공간인 ‘라파르트망 22(L'appartement 22)’에서 예술감독을 맡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 프랑스 보르도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기획했으며, 2006년에는 카타르 아프리카현대미술 비엔날레의 큐레이터를 역임했다.

/오광희기자 kroh@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우리 공군 첫 설계·제작 2인승 경비행기 ‘부활’ 문화재 등록된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국산 항공기의 필요성을 절감한 우리 공군이 1953년 국내에서는 최초로 자체 설계·제작한 2인승 경비행기인 ‘부활’이 문화재로 등록된다. 나아가 역대 대통령 전용 자동차에 이어 대통령 전용 객차도 문화재 목록에 오른다.

문화재청(청장 이근무)은 이들을 포함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공기·철도 관련 유물 14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북 청원 소재 공군사관학교박물관에 소장 중인 ‘부활’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復活’이라는 친필 휘호를 내려 명명시키지 거행한 바 있으며 1960년까지 연락기 및 연습기로 사용됐다. 대통령 전용객차는 1927년 일본에서 제작하고 조선총독부 철도국 경성공장에서 조립한 객차로, 1955년 대통령 전용으로 개조되어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까지 지방시찰 등에 이용했다. 전량대 등의 각종 설비를 갖췄다. /연희뉴스

광주오페라단 23일 오후 4시 광주과기원 강당



오페라 ‘결혼’ 무대 오른다

올해로 창단 26주년을 맞는 광주오페라단(단장 임해철)이 소극장용 오페라 ‘결혼’을 무대에 올린다. 23일 오후 4시 광주과기원강당 오페라극장 대강당. 작곡가 이강백씨의 희곡인 ‘결혼’은 연극 무대에서 자주 선보였던 작품으로 인문지대사인 결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작품이다. 오페라 ‘결혼’은 이씨의 희곡을 바탕으로 공석준(전 연세대교수)씨가 음악을 맡아 소극장 전용 작품으로 사랑을 받아왔다.

오페라는 빈털털이인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 정원이 딸린 집과 화려한 옷, 멋진 가구를 심지어 하인까지 빌려 구인광

고를 보고 한 여자에게 청혼을 하는 데서 시작된다.

하지만 남자가 빌린 물품들은 모두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흐르면서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게 되고, 이를 본 여자는 황당해하는데...

1974년 초연후 꾸준히 공연되고 있는 작품으로 광주에서는 처음 공연되는 오페라다.

서울에서 소극장 오페라를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는 예술무대가 함께 제작에 참여했으며 테너 조효종씨와 소프라노 민숙연씨가 주인공을 맡았다. 문의 062-511-1260. /김미은기자 mekim@

젊은 그들 ‘문화수도 광주’ 세계에 알리다

23개국 통신원·대학생기자단 40여명 멀티미디어 활용 능력 발휘 홍보 출범

‘문화수도 광주, 홍보는 우리에게 맡겨 주세요.’

전문적인 문화 지식과 열정을 갖춘 젊은이들이 ‘아시아문화수도 광주’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운영하는 ‘세계문화도시통신원’(이하 통신원)과 ‘대학생문화기자단’(이하 대학생 기자단)에 소속된 40여명의 젊은이들은 열성적인 활동으로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한 발빠른 정보 수집 능력과 동영상 등을 자유롭게 다루는 멀티미디어 활용 능력을 갖춘 이들의 활약은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07년 하반기 첫선을 보인 ‘통신원’은 세계 각국의 문화 예술 동향을 파악하고 문화 도시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꾸린 단체다. 2기까지 31개국 53명이 거쳐갔고 최근 모집을 끝낸 3기 통신원 32명은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23개국 27개 도시에서 활동하게 된다.

선정된 통신원 대부분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로 각국의 문화 동향과 정책, 관광 등에 대한 정보 글, 사진, 영상으로 취재해 추진단의 문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중요하게 하고 있다. 통신원들은 또 추진단이 현장에서 교류 사업을 진행할 경우 현지 코디네이터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올 7월 첫선을 보인 ‘대학생 기자단’의 역할도 눈에 띈다. 현재 2팀으로 나눠 서울과 광주에서 활동중인 대학생 기자단은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소식을 취재하고 있다.

광주에서 활동중인 나혜미(전남대 영문과), 김지애(광주대 사지영상학과)씨는 지난 7월 광주에서 열린 ‘유네스코 동아시아어린이공연예술제’ 모습과 마스우라 고이치로 세계유네스코 사무총장의 근황 등을 취재했으며 서울의 박용(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씨 등도 2008 아시아나트네트워크와 아시아생활문화사진전 등 생생한 문화 현장 소식을 전했다.

기자단의 성과물은 ‘웹진 문화 아시아 (www.cct.go.kr/webzine)’와 추진단이 운영하는 ‘블로그(blog.naver.com/s6604), 카페(cafe.daum.net/gjasia)’ 등에 게재돼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movies and cinema listings. It features a banner at the top with the text 'Happy Time 영화안내' and several movie posters. Below the banner are six columns of cinema listings, each with a header and a list of movies and showtimes. The columns are: 1. 메가박스 (Megabox), 2. 엔터 시네마 (Enter Cinema), 3. 콜롬버스 시네마 (Columbus Cinema), 4. 써너스 전대 (Sterns Theater), 5. 하미 시네마 (Hami Cinema), and 6. 제일 시네마 (Jeil Cinema). Each listing includes movie titles, showtimes, and contact information.